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산·학·연 머리 맞대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열고 정책 방향 모색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계·학계·연구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용석 중소기업부 차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로 참석했으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중소기업 830만 곳 중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적 장벽이 높다. 단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도 “그간의 정부지원이 기업 매출과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업 규모 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6~2023년 중소기업 성장경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수혜기업의 기업규모 성장 비율은 4.4%로 비수혜기업(0.3%) 대비 10배 이상 높았으며, 소기업의 중기업 성장 비율도 수혜집단이 11.7%, 비수혜집단이 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하락 없이 지속 성장한 집단은 소기업 17.9%, 소상공인 5.9%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액이 1% 증가하면 지속성장군에 속할 확률이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준업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이 일반기업의 고성장 기업 전환 확률을 50~100%, 고성장 유지 확률을 약 20%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수출·창업·기술 분야에서 동일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받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간 누적 지원이 고성장기업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고기술 제조업 비중, 지식집약 서비스업 진입도, 특히 보유 수, 수출 여부 등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규모 성장과 고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문 강연

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분리하는 두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수는 크게 늘었지만 소기업·중기업 비중은 정체돼 있다며 “정부 지원과 규제를 모두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을 통해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인 소기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해 반복적·누적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며, 정부지원사업을 다년 참여하도록 설계해 기업이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 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주력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10일부터 26일까지 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이번 공모전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슌품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14개 시·도별 지역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혁신 제품, 성공 사례 등을 짧고 직관적인 영상으로 제작해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영상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안내 및 접수 방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식품기업 수도권 판로 개척 견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수원 메가쇼서 2.5억원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메가쇼 2025 시즌2’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전북 식품기업의 수도권 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전시에는 바이오진흥원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특화역량 특육성 지원사업,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선발된 총 35개 기업이 참가했다. 진흥원은 제품의 성격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테마형 공동부스를 구성했으며, 전북 수산식품에서 전통식품, 창업기업의 혁신 기반 신제품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선보였다.



전시 품목은 젓갈, 건어물, 해조류 가공품 등 수산가공식품과 장류, 떡류, 전통 간편식 등 전통식품이 중심을 이뤘고,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능성 식품·고단백 제품·간편식 등 다양한 혁신 제품도 함께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사업별 특성이 드러나는 전시 연출과 제품 스토리를 활용한 안내 방식은 시식과 판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현장에서 긍정

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행사 기간 동안 전북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꾸준히 몰려 활기를 띠었고, 일부 제품은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등 참가 기업 8곳이 완판을 기록했다. 현장 판매 및 상담 실적은 약 2.5억 원 규모로 집계되며, 전북 식품의 경쟁력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판매 기회를 넘어 제품 개선 방향과 소비자 선호도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참가를 통해 확보한 소비자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연계, 후속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전북 식품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스타셰프와 함께하는 콩 요리 시연

국산 콩 가치 알리기 위해 에드워드 리 셰프 요리 선보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세계적 셰프 에드워드 리와 함께하는 국산 콩 요리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명 셰프의 요리 시연을 통해 국산 콩의 가치와 활용도를 소비자에게 쉽고 흥미롭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에드워드 리 셰프는 지난해 넷플릭스에 공개된 ‘흑백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결승전에서 다양한 두부 요리를 선보이며 국산 콩의 잠재력과 흥미를 널리 알린 바 있다. 최근에는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 환경 만찬의 총괄 셰프로 활약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 식물성 식재료로, 원물 활용은 물론 기름 추출·단백질 분리 등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 그중 국산 콩은 이동 거리와 탄소 배출이 적고 국내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지속가능한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는 국산 콩비지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콩비지는 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한 재료로, 참가자들은 시연 후 시식 시간을 통해 국산 콩의 깊은 풍미와 영양적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연 영상 및 레시피는 한식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영농부산물 파쇄 집중 지원

전북농협이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주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농협은 지난 8일 김제 관내 농가를 방문해 파쇄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일손돕기를 병행하는 등 영농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영농철 이후 농가에는 볏짚, 콩대, 고춧대 등 각종 영농부산물에 대량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불법 소각으로 이어져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산발 위험까지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파쇄 집중지원 활동에서 전북농협은 지역농협과 협력해 파쇄기 확보·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열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9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고 2개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익산형 일자리를 받은 기업 30개사를 비롯해 익산시, 진흥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 성과 발표, 우수기업 사례 공유 등을 진행했다.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매출 증대, 고용 창출을 목표로 기술사업화·R&D·판로지원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모듈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



정된 리라스팜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리라스팜은 두부 절단기 제작을 중심으로 한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제품규격화와 생산 효율을 높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림산업에 납품을 성사시켰다. 더 나아가 하림의 PB브랜드 ‘하림 오드그로’ 제품과 NS물 등 온라인 유통망까지 판매가 확대되면서 본 사업이 실질적 판로 확장의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오상근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